

특허포기·백신연구 집중... 제약사들 “이윤보다 치료 먼저”

애브비 ‘칼레트라’ 특허권 포기

노바티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1.3억정 무상공급

셀트리온 치료제 개발 R&D 집중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진척 현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으로 이윤을 포기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선 국내외 제약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칼레트라와 일부 특허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더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애브비의 이번 결정으로 칼레트라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기 때문에 복제약

을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애브비의 특허 포기로 칼레트라와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졌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애브비의 결정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칼레트라는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성분의 에이즈 치료제다. 국내에서 일부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해 효과를 봤다.

노바티스는 계열사 산도스가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1억3000만정을 전 세계에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세계 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해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환자에 해당 의약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노바티스는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환자들을 돕

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상업성을 포기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뛰어 들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메르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면서 “상업성, 경제성 따지지 않고 신속성에 맞춰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 회장을 포함한 셀트리온 연구진들은 하루 2시간을 자면서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치료제 개발이 마무리되면 세계 수요에 따라 한달에 100만명분까지 집중 생산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기존 생산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재고 레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약을 적기에 생산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데 주력하겠다”며 “코로나19가 치료제 개발 이전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재감염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투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과 함께 코로나19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모든 연구개발 역량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투입한 상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을 앞장서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판교 연구소 13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스탬바이오테크와 엔지캠생명과학 등 중소 바이오 기업들도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투입한 상태다. 강스탬바이오테크는 현재 개발 중인 류마티스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탬 RA’의 임상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으로 전환해 긴급임상을 진행 중이다. 엔지캠생명과학 역시 다른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던 신약물질 ‘EC-18’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전환하고, 최근 TF를 구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경쟁력 강화 지원”

文 대통령 진단시약 업체 방문

진단 시약 코로나19 방역대응 도움 “바이러스 연구소 등 적극적 역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를 찾아 칭찬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해 상용화한 시약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 사례로 한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인 씨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 과정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5곳(씨젠·코젠바이오텍·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대표와 간

담회를 가졌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응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최초로 도입한 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두 번째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손해폭 감당불가” 문 여는 학원 증가 교육부, 방역지침 점검... 위반 시 손배

학원연합 기자회견 열고 반발 “손실금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문을 여는 학원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원 휴원 권고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필수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지침 위반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학교 안팎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여 추진키로 했다.

학원 등 학생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자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등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를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에는 벌금 300만원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키로 했다.

학원들은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처럼 강력히 휴원을 권고받은 업종이 없을 뿐 아니라 학원들도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며 “한 달이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이 고사 직전인데 손실보상 방안은 없고 집합금지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분노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 절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용수 기자 hys@

유통업계, 코로나19 발 건축경영확산... 임원들 자진 급여반납

매출급감에 선제적 비용절감 단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속 직격탄을 맞은 호텔·패션·뷰티를 비롯한 유통업계 기업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급여 반납에 나섰다. 직원 사기 저하 우려로 건축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임원 급여 반납... 위기의식 드러내

코로나19 여파로 주가지수가 떨어지고 회사채 시장마저 경색되자, 업계에서는 매출급감으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던 우려에 선제적 비용 절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패션 업계 처음으로 일부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 급여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명의로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대표 이하 임원 30여 명 급여의 30%를 자진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상경영의 일환이다.

패션·뷰티 업체들은 LF가 임원 급여 자진 반납을 먼저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증시도 급락한 뒤가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기에 위기의식은 고조되고 있다.

삼성물산·이랜드·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주요 패션·뷰티 업체들은 1분기 실적 윤곽이 드러난 뒤에 건축경영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LF가 1분기가 마감되기도 전에 선제로 임원 급여 반납을 비롯한 건축 조치를 했기 때문에, 패션업계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에서는 유사한 대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SKB, 대학교 인터넷 대역폭 무료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개선 ‘B tv 홈스쿨링 특별관’ 콘텐츠 확대

SK브로드밴드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SK브로드밴드는 대학교의 인터넷 대역폭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지원하고 ‘B tv 홈스쿨링 특별관’ 콘텐츠를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개강한 대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 접속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돼 영상이 끊기는 등 대학생들의 학습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대학생들이 집이나 카페에서도 원활하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자사 전용회선 이용 고객인 14개 대학교의 인터넷대역폭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학이 내달 6일로 재차 연기되면서 지난 2월 말부터 무료로 운영 중인 ‘B tv 홈스쿨링 특별관’의 콘텐츠 범위와 편수를 추가 확대한다. ‘B tv 홈스쿨링 특별관’은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운영한다. /김나인 기자 slkni@